

| 작품 이름 | 어휘 | 뜻 | 용례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일가(生日歌) | 수요(壽夭) | 수명. 오래 삶과 일찍 죽음. | 공명(功名)이 그지 이실가 수요(壽夭)도 천정(天定)이라 |
| 생일가(生日歌) | 금서(金犀)씩 | 금과 무소뿔이 달린 띠. 높은 벼슬아치가 차던 띠. | 금서(金犀)씩 구븐 허리에 팔십 봉춘(八十逢春) 그 몇 희오 |
| 생일가(生日歌) | 팔십 봉춘(八十逢春) | 나이 여든이 넘어 만난 봄. | 금서(金犀)씩 구븐 허리에 팔십 봉춘(八十逢春) 그 몇 희오 |
| 생일가(生日歌) | 역군은(亦君恩) | 임금의 은혜, 유교적 충의사상. | 연년(年年)에 오듯 나리 역군은(亦君恩)이 샀다 |
| 찬기파랑가 | 늦겨곰 | 흐느끼며. | 늦겨곰 브라마 |
| 찬기파랑가 | 드라리 | 달이. | 이슬 불간 드라리 |
| 찬기파랑가 | 몰이 가른 | 모래톱 깊숙이 갈라 들어간. | 몰이 가른 물서리여히 |
| 찬기파랑가 | 물서리여히 |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. | 몰이 가른 물서리여히 |
| 찬기파랑가 | 지벼기 | 자갈 벌에서. | 일오(逸鳥)나릿 지벼기 |
| 찬기파랑가 | 곳가리여 | ① 고깔이여. ② 화랑의 우두머리를 의미. | 누니 모들 두플 곳가리여 |
| 찬기파랑가 | 열치매 | 열어젖히며. | 열치매 |
| 찬기파랑가 | 즈시 | 모습이. | 기랑(耆郎)이 즈시 이슈라 |
| 찬기파랑가 | 지벽히 | 조약돌에. | 일로 나리시 지벽히 |
| 찬기파랑가 | 화판(花判) | 화랑의 우두머리. | 서리 물누을 화판(花判)이여 |
| 신도가 | 디위에 | 경계에. | 디위에 신도 형승(新都形勝)이샀다 |
| 신도가 | 신도 형승(新都形勝)이샀다 |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. | 디위에 신도 형승(新都形勝)이샀다 |
| 신도가 | 지국 성왕(開國聖王) | ① 나라를 만든 임금. ② 태조 이성계를 가리킴. | 지국 성왕(開國聖王)이 성덕(聖代)를 니르어샀다 |
| 신도가 | 잣다운더 | 도성답구나. | 잣다운더 당금썩(當今景) 잣다운더 |
| 신도가 | 당금썩(當今景) | 지금의 경치. | 잣다운더 당금썩(當今景) 잣다운더 |
| 신도가 | 성슈 만년(聖壽萬年) | 임금이 만 년까지 수명을 누림. | 성슈 만년(聖壽萬年) 허샤 만민(萬民)의 함락(咸樂)이샀다 |
| 신도가 | 함락(咸樂)이샀다 | 함께 즐거워하도다. | 성슈 만년(聖壽萬年) 허샤 만민(萬民)의 함락(咸樂)이샀다 |
| 사우가(四友歌) | 풍상(風霜) | ① 바람과 서리. ② 고난과 시련을 의미. | 풍상(風霜)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|
| 사우가(四友歌) | 번폐하고 | 마다하고. | 춘광(春光)을 번폐하고 엄상(嚴霜)에 혼자 피니 |
| 사우가(四友歌) | 엄상(嚴霜) | 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. | 춘광(春光)을 번폐하고 엄상(嚴霜)에 혼자 피니 |
| 사우가(四友歌) | 청고한 | 맑고 고결하다. |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|
| 호아곡(呼兒曲) | 구력망태 | 구력과 망태기.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어 만들어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을 의미. | 아히야 구력망태 어두 서산(西山)에 날 늦 거다 |
| 호아곡(呼兒曲) | 푸새 | 산나물. |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조석(朝夕) 어이지내리 |
| 호아곡(呼兒曲) | 조석(朝夕) | 날마다 일정한 때에 밥을 먹는 일. 또는 그 밥. |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조석(朝夕) 어이지내리 |
| 호아곡(呼兒曲) | 미늘 |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, 물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. | 기나긴 낙대에 미늘 업슨 낙시 띠야 |
| 호아곡(呼兒曲) | 짜부 |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. | 서루룬 짜부를 놀 마조 자부려뇨 |
| 호아곡(呼兒曲) | 성세 궁경(聖世躬耕) | 태평한 시절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. | 두어라 성세 궁경(聖世躬耕)도 역군은(亦君恩)이시니라 |
| 호아곡(呼兒曲) | 대취(大醉) | 술에 잔뜩 취함. | 대취(大醉)흔 얼굴을 들빱체 시러오니 |
| 호아곡(呼兒曲) | 희황상인(義皇上人) | 복희씨 이전의 오랜 옛적의 사람이라는 뜻으로,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. | 어즈버 희황상인(義皇上人)을 오늘 다시 보외다 |
| 강호사시가(江湖四時歌) | 탁료계변(濁醪溪邊) |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. | 탁료계변(濁醪溪邊)에 금린어(錦鱗魚) 안주로다 |
| 강호사시가(江湖四時歌) | 유신(有信)훈 | 신의가 있음. | 유신(有信)훈 강파(江波)는 보내는 니 브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時歌) | | | 람이로다 |
| 강호사시가(江湖四時歌) | 소정(小艇) | 작은 배. | 소정(小艇)에 그물 지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|
| 강호사시가(江湖四時歌) | 소일(消日) |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냄. | 이 몸이 소일(消日)히움도 역군은(亦君恩)이 샅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미록(麋鹿) | 고라니와 사슴. | 전원(田園)에 도라오니 미록(麋鹿)이 벗이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시비(柴扉) | 사립 짝을 달아서 만든 문.=사립문. | 시비(柴扉)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 시리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공명(功名) |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. 또는 그 이름. | 공명(功名)이 귀 무엇고 헌신히 버스니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매몰(埋沒) 혼 |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다. | 초목(草木)이 다 매몰(埋沒) 혼 제 송죽(松竹)만 프르렀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송죽(松竹) | 소나무와 대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. | 초목(草木)이 다 매몰(埋沒) 혼 제 송죽(松竹)만 프르렀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풍상(風霜) |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. | 풍상(風霜) 섯거친 제 내 무스일 혼자 프른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사호(四皓) |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(陝西省) 상산(商山)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. 동원공, 기리계, 하황공, 녹리선생(甬里先生)을 이른다. 호(皓)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,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.=상산사호. | 사호(四皓) 진짓것가 유후(留候)의 기계(奇計)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유후(留候) |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인 장량. | 사호(四皓) 진짓것가 유후(留候)의 기계(奇計)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기계(奇計) | 기묘한 꾀. | 사호(四皓) 진짓것가 유후(留候)의 기계(奇計)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여씨객(呂氏客) | 한나라 고조 유방의 황후인 '여후'. 유방이 죽은 뒤, 자신의 소생을 태자로 세우고, 여씨 일족을 고관에 등용시켜서 여씨 정권을 수립한 인물. | 그러도 아니냥 혼 여씨객(呂氏客)이 되도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고사(高士) | 인격이 높고 성품이 깨끗한 선비. 특히 산속에 숨어 살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덕망 있는 선비를 이른다. | 양생(兩生)이 귀뉘런고 진실(眞實)로 고사(高士) 로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숙손통(叔孫通) | 중국 진나라·한나라 때의 유학자. 진나라 때에 박사(博士)를 지냈으며, 한나라 때에는 유가에 기초해 조정에 의례를 제정했다. 공로로 태자태부(太子太傅)의 벼슬까지 올랐다. | 엇더타 숙손통(叔孫通)은 오다 말라 혼고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천말부운(天末浮雲) |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. | 엇더타 천말부운(天末浮雲)은 오락가락 혼노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만산나월(滿山蘿月) |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. | 어즈버 만산나월(滿山蘿月)이 다 내거신가 혼노라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신릉군(信陵君) | 『인명』 중국 전국 시대 위(魏)나라의 정치가. | 신릉군(信陵君) 무덤 우희 밧가는 줄 못 보신가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역초초(亦草草) 혼니 | 역시 초라하다. | 백년(百年)이 역초초(亦草草) 혼니 아니 놀고 엇지 혼리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봉조(鵬鳥) | 하루에 구만 리(里)를 날아간다는, 매우 큰 상상(想像)의 새. 북해(北海)에 살던 곤(鯨)이라는 물고기가 변해서 되었다고 한다.=대방. | 얼일샤져 봉조(鵬鳥) 야 웃노라 저 봉조(鵬鳥) 야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주하사(柱下史) | 중국 주나라 때에, 장서실을 맡아보던 관리. 특히 노자가 이 벼슬을 하여 노자를 이르기도 한다. ≒주사. | 날을 못지마라 전신(前身)이 주하사(柱下史) 뉘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영욕(榮辱) |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. | 시비(是非) 업슨 후(後) 라 영욕(榮辱)이 다 부관(不關)타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고당소벽(高堂素壁) | 높다랗게 지은 집과 흰 벽. | 고당소벽(高堂素壁)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한식(寒食) |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.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,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(莎草)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. ≒한식날. | 한식(寒食) 비온 밤의 봄빛치 다 퍼졌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) | 무정(無情) 혼 |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맞고 인 | 무정(無情) 혼 화류(花柳)도 재를 아라 피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餘序) | | 정이 없다. | 엇거든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부용당반(芙蓉塘畔) | 연꽃이 핀 못. | 부용당반(芙蓉塘畔)에 수정렴(水晶簾)을 거더두고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혜난혜경(蕙蘭蹊徑) | 난초 핀 좁은 길. | 혜난혜경(蕙蘭蹊徑)에 낙엽(落葉)은 므스 일고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경점(更點) | 조선 시대에, 북이나 징을 쳐서 알려 주던 시간.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 경(更)으로 나누고, 한 경은 다섯 점(點)으로 나누어서, 매 경을 알릴 때에는 북을, 점을 알릴 때에는 징을 쳤다. | 엇더타 현스흔 저 경점(更點)아 줌 못 드러 흐노라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사의(簑衣) | 짚, 때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. | 사의(簑衣)를 니미치고 조기(釣磯)로 올라가니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조기(釣磯) | 남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. | 사의(簑衣)를 니미치고 조기(釣磯)로 올라가니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창해상전(滄海桑田) |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,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=상진벽해. | 어즈버 창해상전(滄海桑田)을 혼자 볼가 흐노라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세고(世故) | 세상의 이러저러한 일. 또는 속세의 일. | 결승(結繩)을 파(罷)흔 후(後)에 세고(世故)도 하도할샤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주향(酒鄉) | 술을 파는 집을 의미. | 출하로 주향(酒鄉)에 드러 이 세계(世界)를 니즈리라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준중(樽中) | 술독의 안. | 준중(樽中)에 술이 잇고 좌상(座上)에 손이 그득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좌상(座上) |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. | 준중(樽中)에 술이 잇고 좌상(座上)에 손이 그득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보허자(步虛子) | 음악』 궁중 연례악의 하나. 왕세자의 거동 때 출궁악(出宮樂)으로 쓰였으나, 궁중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자주 쓰이면서 원형에서 많이 벗어났다. 관악 보허자와 현악 보허자가 있다. | 보허자(步虛子) 못흔 후(後)에 여민락(與民樂)을 니어 하니 |
| 방옹시여서(放翁詩餘序) | 여민락(與民樂) | 『음악』 조선 시대에, 임금의 거동 때나 궁중의 잔치 때에 연주하던 아악곡(雅樂曲). | 보허자(步虛子) 못흔 후(後)에 여민락(與民樂)을 니어 하니 |
| 탄궁가(嘆窮歌) | 안표(顏瓢) | 안희(顏回)의 표주박. 공자의 제자인 안희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향에 살면서도 즐거워했음. | 안표(顏瓢)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|
| 탄궁가(嘆窮歌) | 장초(萇楚)의 무지(無知) | 『시경』에 나오는 말. 부역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,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했음. | 장초(萇楚)의 무지(無知)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|
| 탄궁가(嘆窮歌) | 세시 삭망 | 절기를 의미. |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|
| 탄궁가(嘆窮歌) | 명일 기제 | 명절 때 하는 잔치와 제사를 의미. |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|
| 매화사 | 옥인금차(玉人金釵) | 미인의 금비녀. | 매영(梅影)이 부드친 창(窓)에 옥인금차(玉人金釵) 비겨신저 |
| 매화사 | 암향부동(暗香浮動) |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. | 촉(燭) 잡고 갖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(暗香浮動)하더라 |
| 매화사 | 빙자옥질(冰姿玉質) |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. | 빙자옥질(冰姿玉質)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|
| 매화사 | 아치고절(雅致高節) | 아담한 풍치나 높은 절개로 매화를 이르는 말. | 아마도 아치고절(雅致高節)은 너뿐인가 흐노라. |
| 매화사 | 합리(閤裏) | 문의 내부. | 합리(閤裏)에 차든 곳이 향기(香氣) 노아 맞는고야 |
| 매화사 | 척축(躑躅) | 철쭉. | 동각(東閣)에 숨은 꽃치 척축(躑躅)인가 두견화(杜鵑花)인가 |
| 매화사 | 두견화(杜鵑花) | 진달래. | 동각(東閣)에 숨은 꽃치 척축(躑躅)인가 두견화(杜鵑花)인가 |
| 매화사 | 백설양춘(白雪陽春) |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. | 알괘라 백설양춘(白雪陽春)은 매화맛게 누이시리 |
| 면양정가 | 무변대야(無邊大野) | 끝없이 넓은 들판. | 무변대야(無邊大野)의 므슴 짐작 흐노라 |
| 면양정가 | 치펏는 듯 | 펼쳐놓은 듯. | 쌍룡(雙龍)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펏는 듯 |
| 면양정가 | 사정(沙汀) | 시냇가의 모래톱. | 므조친 사정(沙汀)은 눈긏치 퍼젓거든 |
| 면양정가 | 노화(蘆花) | 갈대의 꽃. | 노화(蘆花)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뇨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면앙정가 | 창애(蒼崖) | 아주 높은 절벽. | 원근(遠近) 창애(蒼崖)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|
| 면앙정가 | 연하(煙霞) | 안개와 노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. | 흰 구름 브흰 연하(煙霞) 프로니는 산람(山嵐)이라 |
| 면앙정가 | 산람(山嵐) |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. | 흰 구름 브흰 연하(煙霞) 프로니는 산람(山嵐)이라 |
| 면앙정가 | 천암만학(千巖萬壑) |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. 깊은 산속 경치를 이르는 말. | 천암만학(千巖萬壑)을 제 집을 삼아 두고 |
| 면앙정가 | 장공(長空) | 끝없이 높고 먼 공중. |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(長空)의 썬나거니 |
| 면앙정가 | 남여(籃輿) |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.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. | 남여(籃輿)를 비야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|
| 면앙정가 | 경궁요대(瓊宮瑤臺) |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(樓臺)라는 뜻으로, 호화로운 궁전을 이르는 말. 곧 눈에 덮인 아름다운 자연. | 경궁요대(瓊宮瑤臺)와 옥해은산(玉海銀山)이 안저(眼底)의 버러세라 |
| 면앙정가 | 옥해은산(玉海銀山) | 눈 덮인 들판과 산. | 경궁요대(瓊宮瑤臺)와 옥해은산(玉海銀山)이 안저(眼底)의 버러세라 |
| 면앙정가 | 가옴열샤 | 풍성하구나. | 건곤(乾坤)도 가옴열샤 간 더마다 경이로다 |
| 면앙정가 | 청려장(靑藜杖) | 아줏대로 만든 지팡이. | 다만 홀 청려장(靑藜杖) 다 뵈되여 가노미라 |
| 면앙정가 | 희황(羲皇) | 고대 중국의 전설적 제왕인 '복희씨'의 다른 이름. 여기서는 복희씨의 시대와 같은 '태평성대'를 가리킴. | 희황(羲皇)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기로피야 |
| 면앙정가 | 악양루(岳陽樓) | 중국 후난성 웨양에 있는 누각. | 악양루(岳陽樓) 상(上)의 이태백(李太白)이 사라오다 |
| 면앙정가 | 호탕 정회(浩蕩情懷) | 넓고 끝없는 정과 회포. | 호탕 정회(浩蕩情懷)야 이에서 더홀소나 |

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(희파27)에 있습니다.

이 자료를 이용한 2차 저작물에 활용 / 무단배포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.